

俛仰 詩文學의 美的 特質

- 주로, 漢詩에 나타난 話者를 중심으로

박종우*

차 례

1. 序論
2. 俛仰 漢詩의 話者와 美的 特質
 - 1) 自己告白의 話者와 삶의 眞實性
 - 2) 觀照的 話者와 自己 正體性
3. 結論

| 국문초록 |

俛仰 宋純의 漢詩는 오랫동안 학계의 주목 대상이 되지 못하다가 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기존의 연구성과를 통해 면양 한시의 다양한 소재와 주제의 양상은 어느 정도 밝혀졌다. 이제는 작품에 대한 다각적 접근으로 이해의 폭의 확장과 심화가 절실하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그의 시문학에 담긴 美的 特質을 화자의 성격 분석을 통해 해명해보고자 한 試論的 高찰이다.

본고는 먼저 면양 한시를 그가 걸어온 삶의 역정과 연계하여 파악하고, 아울러 시적 화자와 관련한 미적 특질의 대표적 양상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俛仰 漢詩의 話者와 美的 特質을 ‘自己告白의 話者와 삶의 眞實性’과 ‘觀照的 話者와 自己 正體性’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삶의 진실성과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면양 시문학이 가지는 미적 특질의 전부는 분명 아닐 것이다. 아울러 이 두 가지 성격이 과연 시작품 속에서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다만, 본고는 두 화자가 때로는 유사해 보이면서도 지향하는 바에 있어서 유의할 만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 구분을 시도한 것이다.

이제 축적된 성과들을 기반으로 호남 문인 그룹의 성격과 문학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할 시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기존 연구를 반성적으로 소화하면서, 새로운 시각의 작품 분석을 통해 호남 문학의 특징적 제 국면을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조선 전기와 후기를 연결하는 漢詩史的 脈絡 속에 이들의 文學史的 位相을 재정립하는 것이 남은 과제이다.

핵심어 : 俛仰 宋純, 한시, 화자, 미적 특징, 진실성, 정체성

1. 序論

俛仰 宋純(1493~1583)은 <俛仰亭歌>를 비롯한 일군의 古典詩歌 작품을 통해서 일찍이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그의 국문 시가 작품의 뛰어난 문학성 성취는, 松江 鄭澈(1536~1593)과 孤山 尹善道(1587~1671)로 이어지는 古典詩歌史의 대표 작가의 한 사람으로서 평가할 수 있게 하였다. 이 평가의 과정에서 면앙과 그의 국문 시가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연구업적¹⁾이 제출되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의 漢詩는 초기의 국문 문학 중심의 연구열로 인하여, 오랫동안 학계의 주목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면앙과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 영역이 점차 심화·확장되면서, 80년대에 와서는 그의 문집 『俛仰集』에 전하는 500수가 넘는 한시 작품에 대한 분석과 평가 작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90년대에 이르러서는 다수의 연구자들을 통해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논의²⁾되었다. 이상의 연구성과를 통해 면앙 한시의 다양한 소재와 주제의 양상은 이제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판단된다. 앞으로는 작품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다각적인 접근으로 이해의 폭을 확장하고 심화하는 시도가 절실히 보인다.

1) 면앙문학에 관한 연구성과에 대한 정리는 최재남, 「송순 연구의 과제와 전망」, 『한국시가문화연구(구 한국고시가문화연구)』 19, 한국시가문화학회(구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07. 246~250면 참조.

2) 면앙의 한시에 관한 연구성과는 백숙아, 「송순 한시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시가문화연구(구 한국고시가문화연구)』 34, 한국시가문화학회(구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14. 192~200면 참조.

이 글은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면양의 시문학에 담긴 美的 特質을 화자의 성격 분석을 통해 해명해보고자 한 試論的 고찰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면양의 生平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주지하듯이 한시 작가들은 작품 속의 시적 화자가 작가 자신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작가의 삶에서 보이는 사건이나 일화 등은 작품의 이해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문집에 전하는 연보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삶의 여정을 간략하게 간추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면양은 1493년(성종 24) 11월에 전라도 潭陽府 鎭谷面(豆毛谷)에서 태어난다. 이후 21세인 1513년에 진사시에 합격한다. 이 해에 鄭萬鍾과 함께 潭陽府使인 訥齋 朴祥(1474~1530)에게 수학한 기록이 있는데, 놀재는 면양의 스승이자 일생동안 정신적 지주가 된다. 본격적인 宦路의 시작은 27세인 1519년에 문과 별시에 합격하고, 그해 겨울에 임명받은 승문원 권지정자부터이다. 그런데 이해에 己卯土禍가 일어나 靜菴 趙光祖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己卯土類들은 대부분 정치적으로 몰락하게 된다. 주지하듯이 정암은 道學政治의 구현이라는 이념의 기치 아래 士林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던 당대의 이상적인 선비상이었던 인물이었다. 그런데 같은 정치적 이상을 갖고 있던 신임 관료인 면양으로서 는 동경의 대상이 몰락한 이 사건이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해 이듬해 겨울에 예문관 검열을 거쳐 홍문관 정자가 되고 賜暇讀書를 한 이후, 30세 1월에 승정원 注書가 된다. 하지만 봄에 파직되어 귀향한 기록이 있고, 이듬해 예문관 봉교가 되어 다시 정계에 복귀하지만 8월 부친상을 당하여 다시 귀향한다. 33세 10월 담제를 마치고 세자시강원 說書의 직책을 받아 복귀한다. 다음 해 홍문관 수찬이 되었으나 다시 해를 넘긴 여름에 파직되어 귀향한다. 바로 그 해 가을에 다시 사간원 정언으로 복귀하고 이듬해 여름에 홍문관 교리가 되지만, 일년 남짓 벼슬살이 후 다음 해 10월 다시 귀향한다. 이듬해 예조좌랑, 경상도 어사, 奉常寺僉正, 議政府檢詳 등을 역임하며 벼슬을 이어가다가 41세인 1533년 金安老의 득세로 중앙 정계를 떠나 고향에 돌아온 뒤 俛仰亭을 짓는다. 이처럼 면양의 초기 정치활동은 부침이 심했다고 할 수 있다.

45세인 1537년 겨울 金安老가 축출되자 홍문관 부응교가 되면서 다시 정치에 복귀한다. 이듬해 사헌부 집의가 된 이후에는 51세에 병을 핑계로 귀향한 것 이외는 58세에 陳復昌·李芑 등에게 논박당하여 충청도 서천으로 유배되기 이전까지 외형적으로는 안정적인 관료 생활을 이어간다. 이 기간에 그가 거친 주요 관직은 임용된 순으로 살펴보면 홍문관 직제학, 승정원 도승지, 경상도 관찰사, 사간원 대사간, 사헌부 대사헌, 전라도 관찰사, 漢城府 右尹 등이다.

그는 59세에 유배에서 풀려나 善山都護府使, 66세 全州牧使, 68세 羅州牧使를 역임하고 70세에 耆老所에 들어간다. 76세에 漢城府 左尹이 되어 明宗實錄을 參修하기도 하지만, 바로 다음 해에 致仕하고 귀향한다.

이후 그는 14년을 고향에서 보내는데 87세에는 백여 명의 호남 문사들이 참석한 回榜宴이 열린다.³⁾ 이로부터 3년 뒤 선조 15년(1582) 2월 1일에 90세를 일기로 생을 마치고, 4월에 潭陽 無量山에 묻히는 것으로 그의 과관만장한 삶은 마무리된다. 이후 1829년에 9대손 宋在悅이 처음으로 정식으로 文集을 간행하였고, 1846년에 續集을 간행하였다.

2. 俛仰 漢詩의 話者와 美的 特質

1) 自己告白的 話者와 삶의 眞實性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 한시 작품에서 의미를 갖는 것은 시적 화자가 작가 자신과 대부분 일치한다는 데에 있다. 작가가 경험한 구체적 삶에서 시적 의미를 만들어내고 시의 언어에 진솔하게 담아내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지만 고백은自省에서 나온다. 자신이 걸어온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면서 지금의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고백이다. 다시 말하면 고백은 세계

3) 이때 유명한 藍輿故事가 있었는데, 연회 자리에서 여러 호남사림 문인들이 면앙을 남여에 태우고 매고 다녔다는 행사이다. 이 일은 호남사림의 만형으로서 후배 문인의 존숭을 받았던 면앙의 당대적 위상을 반영하는 의미있는 행사였다.

와 대면하는 내면을 구축하는 문학적 장치이고, 힘겨운 현실에 대응하여 자신의 문학세계를 이루어가는 시작점이 된다.

鶴在山中鷗在水, 학은 산에 있고 갈매기는 강물에 있는데,
 閑中飲啄自清高. 한가로이 마시고 쪼며 절로 清高하구나.
 爾何獨向長安屋, 어찌하여 너는 유독 長安의 집을 향하여,
 終日飛飛不厭勞. 온종일 날고 날며 지칠 줄도 모르는가.⁴⁾

이 시는 독수리[鷗鳥]를 제재로 당시 정계를 좌지우지하던 세력들을 비판한 寓意的 작품이다. 화자는 첫 구의 학과 갈매기와는 다르게 독수리가 세속을 지향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끝 구의 표현은 일견 독수리를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구의 ‘長安의 집’이 당대 권력자를 상징한다고 보면, 이들의 주위에서 맴돌며 기회를 구하는 듯한 독수리의 모습은 俗塵을 피해 清高함을 지켜가는 학과 갈매기와는 사뭇 다른 처신이다. 그러나 면양의 우의적 시상은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독수리는 자신의 모든 힘을 들여 중앙 권력을 욕망하는 속물적 지식인일 것이다. 그런데 작품의 이면을 천착해보면 독수리는 또 다른 의미로 파악될 수 있다.

여기서 끝구의 ‘종일토록 날고 또 날며 지칠 줄 모르느냐’에서 보이는 설의적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과 갈매기처럼 강호에 있지 못하고 俗塵에서 맴도는 독수리는 비판 대상이라기보다는 바로 화자인 면양 자신의 모습으로 추론할 수 있다. 분명 떨쳐버려야 하는 것이 맞지만 다른 이유에 의해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취하는 역설적 자세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화자는 士林으로서 세상을 의롭게 만들어야 할 소명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괴로워하며 스스로를 꾸짖는 것으로 보인다. 어두운 정치 현실을 멀리하고서는 道義의 실현이라는 사립의 이상을 결코 구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俛仰集』(『한국문집총간』26, 민족문화추진회 영인), <鷗鳥>, 190면. 이후 인용시는 제목과 면수만을 밝힌다.

다음의 인용시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遲回猶未解朝衣 머뭇거리다 여전히 관복을 벗지 못하니,
 安臥林泉願已違 강호에 편안히 누울 바람은 이미 틀렸지.
 塵土半生空有夢 塵土에서 보낸 반평생 부질없이 꿈을 꾸다가,
 溪山此日幸忘機 溪山에서 보내는 오늘 다행히 機心을 잊네.
 雲開一逕筇宜着 구름 열린 한 길은 지팡이 짚고 다니기 알맞고,
 秋晚千峯葉欲稀 늦가을 일천 봉우리엔 잎새 드물어지려 하는구나.
 只愧俗緣多忌處 다만 부끄럽기는 俗緣을 많이 꺼리는 곳이라,
 避人仙鶴久盤飛 仙鶴이 사람 피해 오래 돌며 나는 것이라오.⁵⁾

면양의 국문시거나 한시에서 이 시의 3~4구에 보이는 것과 같은 江湖自然에 대한 愛好나 耽溺이 자주 형상화된다. 이를 근거로 하여 자연친화적 태도를 그의 문학작품의 전반을 해석하는 기본적 틀로 자주 거론하곤 한다. 물론 그가 강호의 흥취를 호탕하게 노래한 것은 사실이고 다수의 작품에서 자주 형상화되어온 것도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이 오히려 면양문학의 전체를 일면적으로 보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남는다. 오히려 그가 걸어온 치열한 삶의 고민은 매우 작거나 그다지 의미 없는 것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는 그가 현실에서 모색하고자 한 삶의 진실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구의 ‘塵土에서 보낸 반평생’은 벼슬살이를 한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고 부질없이 가졌던 ‘꿈’은 사림의 일원으로서 꿈꾸어 온 정치적 이상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4구의 ‘溪山에서 보내는 오늘’은 江湖自然에 대한 흥취와 몰입의 시간이다. 평소에 벗어나기 어려운 ‘機心’을 잊을 수 있는 안온한 치유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5~6구의 ‘구름 열린 한 길’을 지팡이를 짚고 여유 있게 소요하는 모습과 낙엽이 저가는 ‘늦가을 일천 봉우리’를 완상하는 모습은 그러한 시간에서 누리는 여유일 것이다.

5) <宿觀音窟題僧軸>, 213면.

그런데 마지막 두 구에서 모종의 전환이 일어난다. 이어져 온 시상을 감안하면 강호에서의 逸樂을 취흥과 곁들여 호쾌하게 노래하면서 마무리함 직하다. 하지만 화자인 면앙은 부끄럽다는 말로 마무리를 시작한다. 이 부끄러움의 내용을 문면 그대로 읽으면 강호와는 어울릴 수 없음이다. 끝구에 나오는 강호의 淸高함을 상징하는 ‘仙鶴’은 화자와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이다. 화자 자신은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는 속세와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이를 피하는 선학이 이를 피해 내려앉지 않고 배회를 하며 날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화자인 면앙의 내적 갈등이다. 이는 여유롭게 강호자연에 몰입하여 즐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은 속세에서의 소명을 쉽사리 떨쳐 낼 수 없는 데서 오는 갈등이다.

다음의 시에서도 유사한 시상을 확인할 수 있다.

豈知塵土裏 누가 알았으랴, 속진의 가운데에
 得見九臯禽 九臯에서 우는 새 보게 될 줄을.
 身上無全羽 몸에는 온전한 깃털이 없지만,
 雲邊有遠心 구름 가 멀리 갈 마음은 있구나.
 當行澁長步 떠나려 하나 먼 걸음 어렵고,
 欲唳失淸吟 울려 하나 맑은 소리 잃었다오.
 坐受群鷄侮 여러 닭의 모욕을 받는 모습,
 相看淚濕襟 바라보다 눈물이 옷깃을 적시네.⁶⁾

이 시는 시제에서 보듯 우연히 만난 병든 학을 노래한 작품이다. 앞의 인용 시에서 나온 仙鶴이 俗氣를 멀리하고 강호에서 淸高한 모습으로 날아다니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반해, 여기서의 학은 병들어 온몸에 깃털이 빠지고 맑은 소리도 잃은 처량한 신세이다. 화자인 면앙이 이 학에게서 주목한 점은 무엇보다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다는 점일 것이다. 병든 학처럼 자신도 어두운 정치 현실

6) <病鶴>, 190면.

을 떠나 자유롭게 멀리 갈 수 없고, ‘여러 닭의 모욕’으로 비유되는 政敵들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던 처지에서 느끼는 공감으로 읽힌다.

사실 면양은 오랜 기간 안정적 벼슬살이를 지낸 인물로 평가되곤 한다. 일시적 귀향이나 유배가 있었지만 50년의 정치 경력은 일단 수치로만 보면 부침이 별로 없었다는 데에 큰 이견은 없을 듯하다. 하지만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연계해보면 그의 벼슬살이 생활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이 시기는 土禍라는 정치적 사건이 빈발했던 때로서 관료들에게는 더없이 괴롭고 힘든 기간이었다. 더구나 이러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관직을 유지하면서 소신을 가지고 부당한 세력과 맞서는 일은 더욱 힘들었을 것이다.

다음의 인용 시를 통해 당시 면양의 고민했던 삶의 진실성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1 曾將百花克庭實, 일찍이 온갖 꽃을 뜯에 채울 수 있었지만,
紅白無媚春風前. 봄바람 앞에 紅色과 白色은 곱지 않았네.
忽爾生憎朝暮姿, 문득 아침저녁으로 자태가 미워지기에,
喚封此君西溪邊. 西溪의 가에서 此君을 불리와 봉했다오.
5 風霜苦節鎮浮躁, 풍상을 이긴 苦節이 浮躁함을 진압하니,
蕭疏意味眞可憐. 소소한 뜻이 실로 어여빠여길 만하구나.
陰成纔覆床上席, 그들은 겨우 상 위의 자리 덮었는데,
根連已出牆外田, 뿌리는 벌써 담장 밖 밭에 나가 이어있네.
準擬堂西作一林, 집의 서쪽에 숲 하나 만들려 하노니,
10 逍遙杖屨終吾年, 지팡이와 나막신으로 소요하며 생을 마치리.
豈知造物轉生猜, 어찌 알았겠는가, 조물주가 시기심을 내어,
至今寒氣窮深泉, 지금의 추위는 깊숙한 샘을 다 마르게 했다.
盈丈松根且凍死, 한 길을 채운 松根도 얼어 죽었으니,
新遷弱叢那得全. 새로 옮긴 약한 포기가 어이 온전할까.
15 萬葉蕭蕭已失翠, 모든 잎이 쓸쓸히 푸른 빛을 이미 잃고,
隨風亂落鳴前川. 바람 따라 앞 냇물에 어지럽게 떨어졌다.

棲鳥不來蛛網繁, 깃든 새는 오지 않고 거미줄 많이 쳐져,
 終教翦取編魚釜. 결국 베어다가 통발을 만들게 했다오.
 對此如何不腸斷, 이를 대하고 어찌 애가 끊어지지 않으랴,
 20相看老淚空潸然. 보노라니 늙은 눈에 눈물이 흐르는구나.⁷⁾

일반적으로 대는 깨끗하고 굳은 지조의 상징물로서 자주 형상화된다. 그리고 속이 비어 있는 대의 속성은 마음을 비우고 도를 행하는 군자의 성품을 지닌 것으로 오랫동안 선비들에게 애호되는 경물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 시에 나오는 대는 이러한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시의 제목에서 보듯 말라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모습이다. 화자가 이러한 대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히 공감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존재에 대한 진실성과 그에 대한 성찰과 연관된다.

문면을 따라가 보면 우선 4구까지는 대를 심게 된 내력에 대한 설명이다. 보통의 경우 붉은 빛깔과 하얀 빛깔을 뽑내는 아름다운 꽃들로 집안의 뜰에 채우지만, 화자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피고 지는 자태는 싫어서 사시사철 제 모습을 변함없이 이어가는 대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까지는 대의 지조와 절개의 품성을 중요시한 선비의 일반적인 선택에 지나지 않는다. 계속해서 8구까지는 문제없이 잘 자라는 대의 모습을 담담한 어조로 노래하고 있다. 이제 화자는 이런 풍경 속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를 맞이할 생각이었음을 말한다.

그런데 11구부터 18구까지에서는 예상치 못한 대의 죽음에 대한 충격을 전하고 있다. 15~16구의 “모든 잎이 쓸쓸히 푸른 빛을 이미 잃고, 바람 따라 앞 냇물에 어지럽게 떨어졌다.”는 구절은 화자의 깊은 상심을 대변하는 말이다. 이 상심은 자신의 내면 성찰로 이어진다. 마지막 두 구의 “이를 대하고 어찌 애가 끊어지지 않으랴, 보노라니 늙은 눈에 눈물이 흐르는구나.”라고 한 부분은 말라죽은 대를 바라보며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진실성과 마주한다. 삶과 죽음의 엄중한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의미를 성찰한다. 이때 흐르는 눈물은

7) <枯竹歌>, 194면.

그러한 성찰의 과정 뒤에 자연스럽게 발출된 감정의 결과물이 된다.

이처럼 화자를 통해 시비와 모략이 가득한 정치 현실에서 고뇌하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모습과 괴로운 체험을 정직하게 직시하고 담아 드러내고자 한 것은 면앙 시문학의 특징적 한 국면이 아닌가 한다. 그가 作詩에 있어서 당시 유행하던 복잡한 수사나 난해한 상징을 피하고 솔직담백한 시어로 꾸준히 삶의 진실성에 대해 고민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면앙은 결코 삶의 회의에 빠지거나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 굳은 의지와 강개한 기개의 목소리를 통해 날카로운 현실 비판을 노래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의 시에 나타나는 화자의 목소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日已西時月未東, 海는 이미 서쪽인 때인데 달은 아직 동쪽에 안 오르고,
 群星爭耀點長空. 못별들은 다투어 빛을 내며 긴 하늘에 점점이 반짝이네.
 山川氣色因沈沒. 산천의 기색은 그로 인해 잠기고 묻혀버리는데,
 誰識孤懷病此中. 누군들 이 가운데 병든 신세 외로운 회포를 알겠는가?)⁸⁾

이 시기 사회 중 가장 큰 사건은 바로 己卯土禍(1519)이다. 시제에 붙은 諱⁹⁾에서 보듯 이 시작품은 바로 이즈음에 지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관인 중에는 쫓겨나고 죽은 이가 많았다고 한 것이나, 승지가 모략을 하려고 하자 동료가 제지하였다는 自註의 내용으로 볼 때 당시 官界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간취할 수 있다. 중상모략이 난무하고 권력 쟁취를 향한 암투가 끊이지 않았던 격동의 정치현실이었던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기묘년은 면앙이 별과로 급제하고 처음 벼슬길에 오른 해이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해 사회가 일어나 정암을 중심으로 한 이른

8) <暮思>, 185면.

9) “기묘년 가을에 土類 중에 쫓겨나고 죽은 이가 많았는데, 초하룻날 뜰을 울릴 적에 이 시를 함께 기록하였다. 승지 최세철이 이에 중상을 하려고 하자 동료가 그만두게 하였다.(己卯秋, 土類多斥死, 而溯啓筮錄此詩. 承旨崔世節, 仍欲中傷, 同僚止之云云.)”

바 己卯士類들은 대부분 정치적으로 몰락한다. 3구의 어둠에 잠기고 묻혀버린 산천은, 분명 해가 진 주변의 모습을 노래한 것일 터이지만, 이면에는 화자인 면앙이 당시의 정황을 경물에 투사한 것으로도 읽힌다. 그래서 이어지는 끝 구의 ‘병든 신세’와 ‘외로운 회포’에서 고뇌와 갈등에 빠진 화자의 모습이 분명하게 그려진다. 하지만 지금까지 논의한 현실에서의 좌절과 이에 결부된 면앙의 어두운 정신적 漂浪은 그러나 절망적 탄식이나 방황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들은 면앙의 생애와 시 속에서 삶의 진실성을 성찰하고 끊임없는 초극의 계기가 되면서, 그 자체가 이미 定向을 추구하는 한 걸음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면 50년간에 걸친 기나긴 그의 정치 참여는 바로 그러한 심적 자세를 실천으로 옮긴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2) 觀照的 話者와 正體性

자연은 노래하는 작가의 처지에 따라 다양한 얼굴로 다가온다. 같은 경물이라고 하더라도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특정한 모습이 강조되거나 확장되게 마련이다. 예컨대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이에게는 풍요로운 自足的 모습으로, 道學을 일생의 주업으로 삼는 이에게는 天理가 온전히 구현된 수양의 대상으로, 힘겨운 현실과 맞서며 심신이 지친 이들에게는 위안과 재충전의 공간으로 보인다. 면앙문학에서 자연은 세 번째의 얼굴로 형상화되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이 경우에 자연 경물을 노래한 시선과 함께 관조적 화자가 많이 등장한다. 경물 중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다음의 인용시와 같은 누정이다. 누정은 면앙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다. 일찍이 32세에 터가 될 땅을 사두어 누정의 조성을 준비해왔고, 41세에 정계를 떠나 귀향하여 면양정을 지었다.¹⁰⁾ 면양정은 단순히 선비의 유흥과 풍류의 공간이 아닌 자신의 삶을 표상하는 대상으로 해석된다.

10) “安老既兩國得志, 沈貞竄死, 張順孫·韓效元·金謹思又後先入相, 俱安老黨也. 用事蔡無擇·許沆之徒, 締附煽亂, 斥賢類無虛日. 先生憤然而折其惡, 亦自分必敗, 就鄉莊創築倪仰亭.”(〈議政府右參贊倪仰亭先生年譜〉, 272면)

小閣玲瓏起, 작은 누각 영롱하게 세워져 있는데,
 坐來生隱心. 앉았노라니 은거할 마음이 생겨나네.
 池魚依竹影, 못의 고기는 대 그림자에 의지하고,
 山瀑瀉梧陰. 산의 폭포는 오동나무 그늘에 쏟아진다.
 愛石頻回步, 바위를 아끼어 번번이 걸음을 돌리고,
 憐梅果送吟. 매화를 예뻐하여 누누이 노래를 전하네.
 欲知幽意熟, 숨어살 뜻 무르익었음을 알고자 하면,
 看取近床禽. 침상 가까이 온 새를 볼 일이라고.¹¹⁾

위 인용시는 瀟灑園의 누정을 노래한 것이다. 소쇄원은 면앙과는 이종사촌 동생이었던 瀟灑公 梁山甫(1503~1557)가 유배된 후 낙향하여 조성한 園林으로, 1520년부터 1557년 사이에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4구의 “못의 고기는 대 그림자에 의지하고, 산의 폭포는 오동나무 그늘에 쏟아진다.”라고 한 시구에서 보듯, 이는 실제 눈 앞에 펼쳐지는 사물에 시적 관심을 두는 것으로, 흔히 이른바 鳶飛魚躍이나 光風霽月로 상징되는 道學派 문학 속의 추상화된 사물과는 다르다.

면앙이 노래하는 경물은 추상적인 경우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 구체적인 사물을 제재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 경물을 대상화하여 대자연의 원리나 도학적 이념을 추구하는 존재로 보기보다는, 경물 자체를 직접 마주 대하여 즉물적으로 형상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관조적인 시선 그 자체는 도학과 문인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담고 있는 내용은 큰 차이가 있다.

다음의 인용시에서 그러한 해석의 단서를 엿볼 수 있다.

百里群山擁野平, 백 리의 여러 산이 두른 들녘 평평한데,
 臨溪茅屋幸初成. 시냇가 떠집이 다행히 갓 이루어졌구나.
 此身不繫蒼生望, 이 몸은 백성의 바람에 매이지 않으니,

11) <題外弟梁處士彥鎮山甫瀟灑亭 四首> 其一, 197년.

宜與沙鷗結好盟. 모래밭 갈매기와 사이좋게 맹약을 맺는다네.¹²⁾

끝구의 “모래밭 갈매기와 사이좋게 맹약을 맺는다네.”라는 구절로 인해 자연친화적 흥취를 노래한 것으로 해석되는 작품이다. 시제에서 보듯 면양정의 축조 후 소회를 장쾌한 어조로 노래한 것이다. 현전하는 면양정의 위치에 가보면 주변의 평야를 내려다보는 구조로 이 시의 전반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光州 無等山의 산줄기가 이어져 와서 작은 시내 너머로 들판을 두르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3구의 ‘백성의 바람[蒼生望]’이다. 면양이 평생을 추구해 온 사림의 정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백성이 바라는 소망일 것이다. 문면으로는 더 이상 이에 매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것이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소명으로도 읽힌다. 실제로 면양정이 완성된 뒤 귀향의 원인이었던 金安老가 정계에서 축출되자 면양은 바로 상경하여 흥문관 부응교로 정계에 들어간다. 그에게 면양정은 언제든 돌아와서 복귀를 준비하기 위한 재충전의 공간이면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공간이기도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면양정에 대한 관조적 성찰은 다음 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俛有地 굽어보면 대지가 있고,
 仰有天 우러러보면 하늘이 있네.
 亭其中 그 가운데에 정자를 세우니,
 興浩然 흥취가 호연하기도 하구나.
 招風月 풍월도 불러보고,
 搵山川 산천도 청해보네.
 扶藜杖 명아주 지팡이 짚고
 送百年 평생을 보내리라.¹³⁾

12) <俛仰亭>, 198면.

13) <俛仰亭歌>, 232면.

흔히 면앙의 드높은 흥취와 호방한 기질을 말할 때 자주 인용되는 작품이다. 3言이라는 형식이 좀 특이하기는 하지만 문면의 이해에 어려운 부분은 거의 없는 평이한 내용의 시이다. 작품 전반에 도도한 흥취가 자유분방한 태도가 곧장 간취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석을 멈추면 江湖에서의 감흥과 여유 표현이라는 별로 새로울 것 없는 평범한 所懷詩에 지나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면앙은 더 이상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은거하는 삶을 살았어야 한다. 하지만 그의 주요 정치 활동은 오히려 면앙정 완성 4년 뒤 복귀한 45세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면앙정에서의 관조적 성찰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면앙의 이러한 경물에 대한 관조적 시선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과정으로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정체성은, 화자가 놓인 조건 속에서 기억으로서의 자신의 삶의 여정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하는 노력이면서, 스스로에 대한 존재론적 해명으로 이해된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에 대한 새로운 내면적 각성이 시작되고, 나아가 士林의 일원으로서의 소명의식과 자긍심도 더욱 뚜렷해진다.

다음에 인용하는 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攀蘿直上最高臺, 덩굴 더위잡고 곧 가장 높은 누대에 오르니,
千里河山一望開. 천리의 산천이 一望無際로 열려있구나.
今日始知吾眼大, 오늘 처음으로 내 안목이 커짐을 알겠으니,
秋風快意重徘徊. 갈바람에 뜻이 통쾌하여 거듭 배회하네.¹⁴⁾

전반에 걸쳐 면앙의 호방한 어조가 두드러지는 이 시작품은 양양의 洛山寺에 있는 義相臺에 올라가 바라본 경관을 노래하고 있다. 누정과 마찬가지로 누대도 면앙의 시에 종종 등장하는 제재이다. 이 공간이 갖는 의미도 누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앞의 면앙정과 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삶의

14) <上義相臺> 二首, 213면.

지향점을 모색하는 공간이다. 1~2구는 의상대 주변의 경관을 직시한 것이다. 드넓은 동해 바닷가가 바다로 보이는 높은 위치의 실제 경치가 생생하게 느껴진다.

이 시에서 관심이 가는 것은 3구에 보이는 ‘내 안목이 커진다[吾眼大]’는 구절이다. 이 안목은 바로 누대의 경관을 둘러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관조하는 과정에서 얻은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에서 이어지는 새로운 삶의 방향에 대한 깨달음은 마지막 구의 ‘통쾌한 뜻[快意]¹⁵⁾에 다름 아니다. 이와 같이 관조적 화자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깨달아 가는 시상 전개는 면앙 시작품의 개성적 일국면으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면앙의 이러한 시적 개성은 다음의 인용시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萬木同春容 모든 나무의 봄의 모습은 비슷하지만,
 歲寒方驗節 추운 시절에 바야흐로 절의를 징험한다오.
 庭前植雙翠 뜰 앞에 한 쌍의 푸른 나무 심으니,
 4所尙誰能折 고상히 여기는 바 누가 꺾을 수 있으리.
 知向風雪閉 알겠구나, 눈보라가 불어오는 사이에
 用意常苦切 마음 씀이 항상 괴로운 법인 것을.
 襟期潔於玉 품은 기약은 옥보다 깨끗하고,
 8志操堅如鐵 지조는 굳기가 강철과 같다오.
 如我蒲柳輩 부들이나 버들 같은 우리 무리는
 難與并爲列 더불어 열에 들어서기 어렵구나.
 十年困進退 십년을 진퇴에 곤란을 겪다가,
 12方時已告歇 이제서야 이미 끝을 고했구나.

15) 高峯 奇大升은 면앙정의 축조를 기념하는 記文中에서 면앙의 정신적 경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푸른 하늘을 누가 우러러 떠받들지 않으며, 아득한 땅을 누가 굽어보며 밟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所以然을 알아서 자신에게 돌이킬 수 있는 자는 적습니다. 지금 공께서는 이미 이것을 마음속에 얻고 이것으로 정자의 이름에 뜻을 붙였으니, 이 浩然한 興趣는 진실로 보통 사람들이 감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蒼蒼者, 孰不可仰而戴之, 茫茫者, 孰不可俛而之. 然而知其所以然, 而能反之於身者, 蓋寡矣. 今公既以得之心, 而寓之於名, 其浩然之興, 固有人所不敵知者.)”(奇大升, <倂仰亭記>, 299면.)

縱爲男子身 설령 남자의 몸으로 되었지만,
 孰稱人中傑 누가 인중호걸이라 일컫겠는가.
 所幸無物遷 다행스러운 건 외물에 이끌리지 않고,
 16本心猶水潔 본심은 여전히 얼음처럼 깨끗함이라.
 若非堯舜道 만일 요순의 道가 아니라면,
 羞與向人說 남에게 말하기 부끄럽게 여기네.
 喜鵬游薄天 봉새가 하늘에까지 날기를 좋아하고,
 20厭狐藏得穴 여우가 구멍 속에 숨음을 싫어하네.
 公不捨是心 공은 이 마음을 버리지 않아서
 已許共霜雪霜雪을 함께 하기로 다짐했다오.
 誠可通金石 정성은 금석을 뚫을 만하고,
 24志常懸日月 심지는 일월처럼 높게 걸렸구나
 邪正寧復論 邪와 正을 어찌 다시 논하리오,
 松茂柏自悅 소나무 무성하면 잣나무 절로 기쁘네.¹⁶⁾

이 시는 雙翠亭의 경관과 축조한 인물의 덕성을 노래한 작품이다. 쌍취정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기록은 문집에 없고 동일한 명칭의 정자에 대한 기록이 몇 곳에 더 있어서 논의의 여지는 있지만, 아마도 지금의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모정리에 있었던 누정으로 추정된다. 이 쌍취정은 石川 林億齡(1496~1568)의 막내 동생인 月堂 林九齡(1501~1562)이 축조한 것이다. 주지하듯이 석천은 면앙과 함께 놀재 박상의 문인으로서 교분이 깊었기 때문에 석천의 동생인 월당도 면앙과 친분이 있었을 것임은 짐작할 수 있다.¹⁷⁾

물론 다른 사람의 누정을 노래한 것이지만, 계속되는 朋黨의 갈등과 士禍로 인해 험란한 정치 현실 속에서 물러나 누정을 세우고, 이를 통해 삶의 정체성을 관조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구하는 사상 전개는 앞의 인용시와 유사하다. 2구의 ‘추운 시절’이나 5구의 ‘눈보라가 불어오는 사이’는 어두운 현실을 의미

16) <雙翠亭>, 222면.

17) 물론 월당은 1545년 乙巳士禍 이후 정치 참여를 선택한 인물로 후대의 평가는 낙향을 선택한 석천과는 차이가 있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뚜렷하게 확인하는 것은 삶의 정체성이다. 7~8구의 옥보다 깨끗한 ‘품은 기약과 굳기가 강철과 같은 ‘지조’에서 시작하여, 15~16구의 외물에 이끌리지 않고, 얼음처럼 깨끗한 ‘본심’으로 이어지고, 23~24구의 금석을 뚫을 만한 ‘정성’과 일월처럼 높게 걸린 ‘심지’로 마무리되는 관조적 시선들은 그러한 인식을 노래한 것이다.

이러한 시상의 흐름으로 볼 때 17구의 ‘요순의 道’는 사림으로서 표방하는 이념의 핵심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끝 구의 소나무와 잣나무는 사림의 이념과 이상 실현을 함께 추구하는 同志의 형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거센 눈보라를 이겨내는 松柏은 면앙뿐만 아니라 당대의 호남사림이 공유하고 있었을 드높은 정신적 지향을 表象하는 사물이다. 함께 사림의 소명을 실천할 때를 기다리면서 힘든 현실을 견디는 당당한 송백의 모습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정신적 지표와 삶의 과제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송백의 맑고 깨끗함은 혼탁한 현실 속에서 고고한 삶을 지향하는 면앙의 의식에 상응하는 것이라 하겠다.

3. 結論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면앙 한시를 그가 걸어온 삶의 역정과 연계하여 파악하고, 아울러 시적 화자와 관련한 미적 특질의 대표적 양상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俛仰 漢詩의 話者と 美的 特質을 ‘自己告白의 話者と 삶의 眞實性’과 ‘觀照의 話者と 自己 正體性’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삶의 진실성과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면앙 시문학이 가지는 미적 특질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아울러 이 두 가지 성격이 과연 시작품 속에서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본고는 두 화자가 때로는 유사해 보 이면서도 지향하는 바에 있어서 유의할 만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 구분을 시도한 것이다.

이미 여러 선행 연구¹⁸⁾를 통해 면앙을 필두로 한 16세기 호남 문단의 존재와 활동 양상이 분명히 확인되었고, 이들 중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는 이미 작가론적 접근이 상당 부분 진척된 바 있다. 이제 이러한 축적된 성과들을 기반으로 하여 이 문인 그룹의 성격과 문학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반성적으로 소화하면서, 문학작품의 분석을 통해 美的 特質 등을 究明함으로써 호남 문학의 특징적 제 국면을 해명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조선 전기와 후기를 연결하는 漢詩史의 脈絡 속에 이들의 文學史의 位相을 재정립하는 것도 우리에게 남아 있는 과제이다.

18) 면앙이 활동하던 시대의 호남지역 시단에 관한 연구는 박명희, 「15~6세기 전남지역 문인의 시단형성과 산수미 표현」, 『동방한문학』 26, 동방한문학회, 2004. 279~281면 참조.

참고문헌

- 宋純, 『俛仰集』, 『한국문집총간』26, 민족문화추진회 영인본.
- 박명희, 「15~6세기 전남지역 문인의 시단형성과 산수미 표현」, 『동방한문학』 26, 동방한문학회, 2004.
- 최재남, 「송순 연구의 과제와 전망」, 『한국시가문화연구(구 한국고시가문화연구)』 19, 한국시가문화학회(구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07.
- 백숙아, 「송순 한시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시가문화연구(구 한국고시가문화연구)』 34, 한국시가문화학회(구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14.
- 박명희, 「눌재(訥齋) 박상(朴祥)의 현실인식과 시적 대응」, 『어문론총』 82, 한국 문학언어학회(구 경북어문학회), 2019.

| Abstract |

A study for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Myeonang*(俛仰)'s Poetry

Park, Jong-woo

Korea Univ. Senior researcher

The Chinese poetry of *Myeonang*(俛仰) *Songsun*(宋純) was not popular for a long time, but it was carried out in earnest after the 1990s. The existing research has revealed to some extent the various materials and themes of *Myeonang* Hansi(漢詩). Now, it is urgent to expand and deepen the scope of understanding with a diversified approach to the work. This article is a poetic consideration to explain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his poetry literature through the characteristic analysis of the speaker.

The key point of view first identified *Myeonang* Hansi in connection with the process of his life, and also attempted to consider the representative aspects of aesthetic characteristics related to poetic speakers. The speakers and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Myeonang* Hansi(漢詩) were divided into "self-confession speakers and integrity" and "governmental speakers and identity." Serious search for the truth of life and self-identification may not be all of the aesthetic qualities of poetry. In addition, it will be possible to raise the question of whether these two personalities can be clearly distinguished in the beginning.

However, the point of view attempted to distinguish the two speakers, believing that they sometimes seem similar, bu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ir goals.

Based on the accumulated achievements, I think it is time to review the characteristics and literature of *Honam*(湖南) literary group. While reflectively digesting existing research, the analysis of the starting product will explain the characteristic situation of *Honam*(湖南) literature. In addition, it is a task for us to redefine their literary and historical status in a temporary context linking the early and late *Joseon*(朝鮮).

Key words : *Myeonang*(俛仰) *Songsun*(宋純), Hansi(漢詩), the speaker,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integrity, identity.

